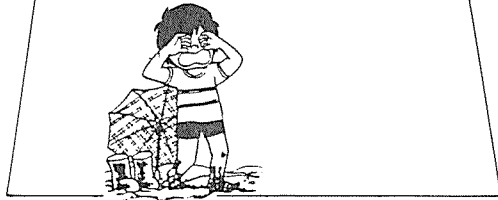


장난감과 안전의식



민철기

오늘날 아동을 위한 장난감은 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릴적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 것처럼 갖고 싶었던 장난감, 귀하고 비싼 장난감 한번 가져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아쉬움에 젖었던 경험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시절은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많이 달라져서 경제상으로 보더라도 당당히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부(富)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난감도 다양각색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어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구매 욕구를 느끼기에 충분한 상품으로 백화점이나 문방구의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장난감은 어린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것, 탐구심이나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장난감 하나 둘 없는 가정이 없게까지 되었다.

그런데, 장난감을 선택하는 사람은 보통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다. 내 자식을 위해서 고르고, 다른 집 아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도 장난감을 사게 된다. 이때 장난감의 선택 기준은 어디까지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아이들에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장난감을 고를 때에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뼈죽뼈죽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입에 넣었을 때 표면의 물감으로부터 오는 해독이 혹시 문제가 되

지 않을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움직이는 와중에서 혹시 가벼운 부상이라도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등.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장난감을 선택하다 보면 자연히 안전의식도 높아지고 또한 이 의식은 그대로 발전해서 성인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안전행동을 하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미국같이 안전의식이 매우 높은 선진국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완구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검사를 거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인체에 해를 가져온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려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아용은 특별한 배려를 해서 이중 삼중의 검사를 거치게 하고 있다. 유아들은 9개월이나 10개월로 접어들면 주변에 있는 물체를 하나하나 감식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발동된다고 한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입으로 가져가서 맛까지 보아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므로 유아용으로 만든 모든 장난감은 이점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때 유해 색소를 사용했다거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어서, 입속으로 이 색소가 들어가거나 모서리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장난감의 본래 목적인 취지에 크게 어긋나서 한갓 흥기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장난감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든 면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

대여섯살 난 어린이가 탁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입 속에 넣고 굽기야는 이것이 기도를 막아 일시적인 호흡 정지 때문에 큰 소동을 피운 일이 있는가 하면, 구슬치기를 하고 놀던 어린이가 색색의 유리구슬을 입에 넣고 삼켜서 병원에까지 쫓아오는 등의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안전사고의 예이다.

아이들의 안전 교육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는 시기부터 시작하면 매우 효과적이라 한다.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줄 때, 그 장난감의 사용 목적, 용도, 가지고 놀 때의 주의사항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깨우쳐주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잘 따라오게 되어 있다.

특히, 잘못 사용해서 인체에 해로움이 생길만한 사항은 부모가 실제로 한번 몸소 보여주어 아이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지각이 모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어머니 아빠의 언행이 곧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규율이 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도록 한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안전의식은 일생을 두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7]

(필자=안전전문가)